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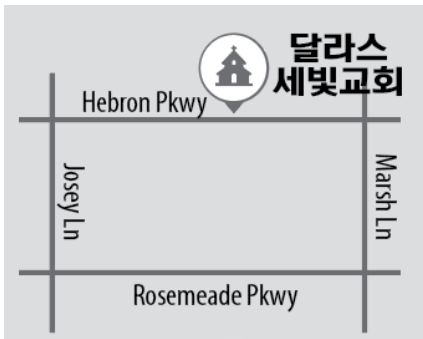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로 여는 하루〉 화요일-금요일 아침 6시 (기쁨의 언덕으로)

1. 중보기도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1) 영혼구원을 위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 2)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서성언 선교사, 서순례 권사, 박세현 자매)
 - 3)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하여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북한 선교 (갈렙선교회와 모퉁이돌선교회) 사역을 위하여
 - *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팔레스타인, 수단, 미얀마,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 *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는 엄목사님을 위하여
2. 9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 오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3. 미 이민법 온라인 세미나 안내
글로벌감리교회(GMC) 한미연회 평신도위원회 주최로 변화하는 미국 이민법과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가 9월 15일(화)과 22일(화) 오후 7시(중부시간)에 개최됩니다.
관심 있으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헌금안내〉 Zelle : sebitkgmc@gmail.com (PNC bank)
Pay to the order of : SebitKGMC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 김형남 목사
협동목사 / 김승호 목사
반주자 / 권한임 사모
영상 및 음향 / 김찬미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교회
달라스 만나교회, 케냐 마구무 감리교회
Longview 감리교회, Arkansas 감리교회

표어 : 오직, 주님 밖에 없습니다.

2026년 9월 6일



세빛교회는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복음의 빛을 비추며,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은혜의 만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2201 E Hebron Pkwy, Carrollton, TX 75010
Tel: 945-360-0049 sebitkgmc@gmail.com
facebook: 달라스 세빛감리교회 / Youtube : 달라스 세빛감리교회

오전 11:00 / 오후 2:30

교회소식		인 도 자
예배초청		
경배와 찬양	1. 이와 같은 때엔 2.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3. 나 주의 믿음을 갖고 4. 주 은혜임을	세빛 찬양단
합심기도	감사와 회개의 기도	인 도 자
대표기도		권한임 사모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다 함 께
봉 헌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다 함 께
봉헌기도		인 도 자
성 만 찬		집 례 자
성경봉독	히브리서 12: 1-5	인 도 자
설 교	포기하고 싶을때	담임 목사
찬 양	주 나의 모습보네	다 함 께
축 도		담임 목사

온라인 새벽 예배

화요일 - 금요일 / 오전 6시 (유튜브: 기쁨의 언덕으로)

주일 예배 2부

주일 2:30 / 2층 (End Zone)

다음 주일 담당

9월 기도 순서

- 9 / 6 : 권한임 사모
- 9 / 13 : 담임 목사
- 9 / 20 : 김영님 자매
- 9 / 27 : 이지혁 집사

성만찬은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예배 순서 중 하나를 형식적으로 치러내는 행사가 아닙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은혜의 수단이며, 복음의 핵심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는 신앙의 중요한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만찬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찢으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떡을 나눠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35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삶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희생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그냥 떡 한 조각, 잔 한 모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그 생명에 참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찬 자리에서 우리는 "아,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구나" 이것을 눈과 몸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한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같은 떡, 같은 잔에 참여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과거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감정이나 음악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예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우리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자리입니다.

성만찬은 의무적으로 형식에 맞춰 진행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만남의 시간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성도와 연합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매우 중요한 은혜의 자리입니다.